

## 출판의 ABC를 배우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7

김병익 | 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초빙교수

“어떤 분의 글에서 이어령씨가 한국문학사는 ‘입헌군주국’ 이고 창작과비평사는 ‘대통령 책임제’ 며 문학과지성사는 ‘내각책임제’ 라고 비유했다는 대목을 봤다. 당시 종로의 수송동 언저리에 몰려 있어 문인들이 시내 나오면 으레 순방하던 이 세 출판사의 체제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였는데, 이어령식의 그 절묘한 재치에 탄복하면서, 적어도 문학과지성사가 내각책임제라는 점에는, 나 역시 동의했다.”

출판사를 창업했지만 정작 나 스스로는, 자신의 저서를 가지고 있고 책과 관련된 일을 해왔음에도 실무에는 거의 백지상태였다. 영업방식과 서점거래에는 전혀 무지했고 물론 제작이며 편집에도 깜깜했으며 활자 크기도 몰랐고 표기법도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이런 판에 출판의 모든 분야에 최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기웅씨와 한 사무실을 쓰며 기초부터 배우고 출판의 ABC를 익혀갈 수 있었던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 이기웅씨에게 출판일 배워

그는 적어도 출판에 관한 한 내 선생이고 안내자며 에이전트였다. 나는 하나하나 묻고 일일이 확인하며 표기법과 교정의 편집 기초부터 인쇄와 제본의 제작과정, 그리고 수금과 지불의 관행에 이르기까지, 기능적인 것에서 경영에 이르는 출판 기업의 모든 업무를 그에게서 배웠고 그가 소개해준 인쇄소, 지업상, 제본사들과, 그가 흥정해주는 단가로 거래를 텃다. 동대문의 진명서적에 총판을 맡기기로 한 것도 그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창사 25주년을 맞아 간행된 열화당 사사(社史)에 쓴 회고에서도 고백한 대로, “그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문학과지성사는 성장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분명 시간과 정력과 경비가 훨씬 많이 들었을 것이고 시행착오와 실패도 엄청 잦았을 것이다.”

엄격하면서도 관용적이고 진지하면서도 진취적인 그의 인품과 능력은 내가 흉내내봐도 결코 미치지 못하는 바였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감사할 일은 그의 깔끔한 거래방식을 내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이였다. 그는 월말 즈음이면 제작 거래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얼마의 지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통고해주고, 정한 날 수금사원과 차를 마시며 미리 준비한 봉투를 건네 확인시켰다. 그때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서로 건네는 그 태도는 상업적인 거래임에도 보기 힘든 신뢰와 존경이 교류했다. 나도 그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따르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대했고 그래서 지불-수금의 관계는 험악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선입견을 씻어낼 수 있었다. 거래처와의 이런 신용 거래와 신사적인 관계는 특히 회사가 어려워 지불이 여의치 않을 때 상대방부터 재량껏 수금 유예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후에 깨달았다.

일들이 손에 익어가면서 재미가 붙고, 저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책을 내는 데 보람을 얻게 돼 가면서 나는 주먹구구식이었지만 출판사 운영에도 조금씩 자신이 붙어가고 있었다. 《겨울여자》가 베스트셀러였고 황순원 선생의 창작집 《탈·기타》며 이어 나온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는 책마다

평단과 독자들의 반응이 활발했고 경영도 호조였다. 서점이나 독자들, 저자나 신문사들은 신생 출판사임에도 잡지 《문학과지성》 이름 덕분에 관록있는 기성 출판사로 대우해줬고 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찾아와 우리를 도울 길을 찾았으며 김승옥, 오규원, 권영빈은 우리 책의 표지와 신문 광고 원고를 나눠 만들어줬다. 문지사 책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책등의 붉은 딱지는 권영빈씨의 아이디어였다. 좁은 사무실에서 술한 방문객들과 바둑을 두고 혹은 떠들고 교정보고 그러다 저녁이면 한잔 술을 걸치던 그 가난한 시절의 순진한 열정은 차라리 아름다운 것이었다.

### 교정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아

열화당과 함께 쓰던 7평짜리 출판사 공간을 두어 달 후 20여평으로 확장하고 직원도 늘려, 편집만은 따로 채용했지만 영업과 경리 직원은 여전히 두 출판사 공용으로 일을 했다. 나는 영업은 후에 문학과지성사 사무까지 지낸 최장석씨에게 맡겼지만 편집만은 직원이 있음에도 원고와 교정지 보는 일은 직접했다. 원고 또는 초교나 재교의 어느 하나를 꼭 보는 버릇은 이때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됐는데 시인 허수경씨는 “사장이 직접 교정 본 시집”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지만, 사실 나 스스로도 ‘2급 교정사’라고 자임하며 문장까지 고치는 나의 교정 솜씨는 소설집의 경우 이틀이면 한 권을 마치도록 상당히 능률적이기도 했으며 작가와 저자들도 나의 지적이나 수정을 대체로 수긍했다. 나는 교정 일을, 이기웅씨에 이어 일조각에 근무하다 전업작가로 나선 윤홍길씨에게서 익혔지만 좀더 높은 수준의 교정 방식과 그 정신을 가르쳐준 분은 《탈·기타》를 낼 때의 황순원 선생이었다. 황선생은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썼고 행간 띄우는 수법이며 리듬을 위해 띄어쓰기를 덜 엄격하게 하는 태도 등으로 교정이 단순히 정확한 표기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무언으로 내게 교

육시켜준 것이다.

교정 일에 내가 것처럼 열심이었던 것은 당초에는 직원이 모자라서였지만, 나는 그 일 자체를 재미있어 했고, 출판 관계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편했던 탓도 있는데다 이렇게 교정지를 통해 나의 모자라는 독서량을 채우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때의 독서란 묘하게도 글자와 단어와 문장은 세세히 보지만(아니 보기에), 책의 대의는 잡히지 않고 세부만 기억될 뿐이어서 독서랄 것이 못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교정에 익숙해지면서 신문이나 책을 보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 교정을 보고 있는 것이어서 남의 책도 잘 읽히지 않아 애를 먹게 됐다. 그래도 나는 교정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한 후배 출판인이 이런 나를 보고 사장이라면 교정을 보기보다 그 시간에 저자며 서점인들을 만나 상담하는 등 출판사 경영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진심어린 눈빛으로 충고해줬다. 나도 그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내가 교정일에 고집을 지킨 것은, 사장이 되더니 사장티만 내고 경영만 알지 책은 모르게 됐다는, 주변의 있을 수 있는 비판을 진하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나는 피할 수 없는, 가난한 책상물림의 서생이었음이 분명했다.

이렇게 내가 출판 일을 익혀가고 간행되는 도서의 종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출판사의 출판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의 문학과지성사 출판 기준 비슷하게 굳어진 그것들은 처음부터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해가며 부닥치는 사안들을 협의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칙처럼 굳어진 것들이었다. 나는 그 원칙들을 창사 15주년이 되는 1990년에 처음 만든 《문학과지성사 도서목록》에 정리했는데, 옮기면 이렇다.

- 1) 수필집·아동도서·참고서·교과서는 내지 않는다.
- 2) 자비 출판은 사양한다.
- 3) 외국 것은 문학과 인문과학의 이론서 혹은 고전적인 시집의 완역으로만 한정하고 소설은 출판하지 않는다.
- 4) 한국인의 저작은 10%의 인세로 한다.
- 5) 번역도 가능하다면 인세제를 채택한다.
- 6) 편서도 인세제로 한다.

등 몇 가지다. 당시 우리의 판단은 수필집은 수준 이하였으며 외국 이론서나 시집의 간행은 너무 취약한 상태여서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할 것이지만 소설만은 출판사들간에 중복 간행하는 등 과당 경쟁이어서 우리까지 끼어들 것은 없겠다 싶었던 것이다. 교과서와 참고서는 단행본 출판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었고 자비 출판은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출판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었다. 그런데 다시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당시 장사가 될 만하고 돈이 들어올 만한 것들은 모두 사양한 셈이었고

그것은 말하자면 상업주의의 거부이기도 했다. 더구나 인세를 10%로 결정해서 모든 저서들에 적용했던 것은 단행본 출판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인세에 대한 기준과 관념이 혼란스러웠던 시절로서는 대담한 결정이었고 더 나아가 편서까지 인세를 지불토록 한 것은 파격적일 수 있었다.

### ‘내각책임제’ 스타일로 출판사 운영해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출판사로서 이처럼 오기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초기의 우리 출판물이 호평 속에 판매량도 호조였고 재정 상태도 호황인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동인들이 나까지 포함해서 좋은 문학의 의미를 강조하는 비평가로서 우리가 존중할 수 없는 도서들은 아무리 장사가 된다 하더라도 자제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자였기에 다른 문인·학자들도 저자로서의 위상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출판사가 동인들의 합자회사라는 점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우리 출판사는 돈을 벌면 안된다. 그것은 출판사 설립의 의도에 반할 뿐 아니라 동인들 사이를 더럽힌다”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는데, 그것은 서로가 공감하는 진심이었다. 우리는 새 책을 내는 재투자 비용만 확보되는 한에서 현상유지를 최상의 상태로 생각했던 것이다. 운영과 방침에 대한 이 모든 합의 과정은 작품의 출판 여부 결정에 대해서처럼 동인들 간에 자연스럽게우면서도 반대 없는 상의 속에 이뤄진 것이었다.

어떤 분의 글에서 이어령씨가 이렇게 비유했다고 인용한 대목을 봤다. 한국문학사(김동리 선생이 발행인이고 이문구씨가 주간이었다)는 ‘입헌군주국’이고 창작과비평사는 ‘대통령 책임제’며 문학과지성사는 ‘내각책임제’라는 것이었다. 당시 종로의 수송동 언저리에 몰려 있어 문인들이 시내 나오면 으레 순방하던 이 세 출판사의 체제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였는데, 이어령식의 그 절묘한 재치에 탄복하면서, 적어도 문학과지성사가 내각책임제라는 점에는, 나 역시 명실상부한 것으로 장담할 수 있었다.●